

C. 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 나타나는 생태학적 상상력 (『사자와 마녀와 옷장』을 중심으로)

조성진(성균관대학교 비교문화협동과정 석사과정)(대학원 2-3)

논문초록

성경은 생태학적 이슈들에 대해 대체로 명확한 관점과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기독교 생태학은 그러한 성경적 관점과 답변을 다룬다. 본 연구는 기독교 생태학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 세 가지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기독교 생태학적 상상력을 탐구하고자 한다. 첫째는 창조주 신앙이고, 둘째는 관계의 회복이며 셋째는 생태학적 구속의 비전이다.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는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이 참신하고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그 요소들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밝히고, 작품이 독자에게 줄 수 있는 다양한 효과와 영향력을 다룬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후속적인 작품 연구를 활성화시켜 기독교 생태학적 상상력이 지니는 잠재력을 일깨우는 것과, 창조적이고 설득력 있는 기독교 문화 콘텐츠 제작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주제어: 기독교 생태학, 생태학적 상상력, C. 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

1) 본 논문에 인용되는 『나니아 연대기』의 판본은 동화적 측면이 강조된 ‘시공주니어’의 2005년도 개정판과 HarperCollins의 2001년도 개정판을 따름. 이후 『사자와 마녀와 옷장』에서 인용 시 편의상 괄호 안에 페이지만 표기함.

- I. 들어가며
- II. 나니아의 창조자와 관계 맺기
- III. 관계의 회복 경험하기
- IV. 축제의 공존의 비전 누리기
- V. 옷장 밖으로 나서며

I. 들어가며

만약 이 세상의 어떤 경험도 충족시켜줄 수 없는 갈망을 내안에서 발견한다면, 가장 그럴 듯한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에서 만든 인간이라는 것이다.²⁾ - C. S. 루이스

기독교는 생태 환경에 대해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는가? 역사가 린 화이트(Lynn White Jr.)가 1966년에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라는 논문에서 기독교를 환경 위기를 촉발시킨 주범이라고 주장한 이후 서구 학계에서는 기독교가 생태적인지 혹은 반생태적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화이트가 논문을 쓰기 약 30 여전 전부터 이미 C. S. 루이스는 자신의 기독교 생태학적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며 『사자와 마녀와 옷장』의 집필을 구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과연 기독교 내에서 '어떻게' 생태학적 상상력이 가능하며, 만약 가능하다면 그 상상력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담겨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만약, 이 논의가 생산적이라면, 이 연구는 기독교 작품을 감상하고 분석하는 데 유용한 구조 틀(framework)로 활용될 수 있으며, 또한 기독교 상상력을 바탕으로 문화컨텐츠를 창작하는 이에게 하나의 가이드 라인(guide line)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생태학(ecology)'라는 용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그 단어는 eco와 logy의 합성어로서, 그리스어의 oikos(집, 터전)와 logos(이성, 학문)의 어원을 가지고 있다. 즉, 생태학은 기본적으로 존재의 터전에 대한 학문이다. 독일 생물학자 헤켈(Ernest Haeckel)이 생태학을 '유기체가 자신을 둘러싼 외부 세계와 맺은 관계를 연구하는 종합 학문'이라고 규정한 이후 생태학은 여러 학문 분야로 세분화 되며 발전해왔다. 그 중 '생태 문학' 혹은 '생태 비평'(ecocriticism)의 영역은 생태계를 바라보는 '문학적 상상력'을 주요 이슈로 다룬다. 이처럼 생태학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학문의 역사를 고려해볼 때, 생태학적 상상력이란 터전 그 자체, 존재와 터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상상력을 지칭한다고 요약해 볼 수 있겠다.

역사적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어느 범위까지를 우리의 '집' 혹은 '터전'으로 볼 것이며, 그 터전 속에서

2) 피터, J 새클, 『나니아 가는 길』, p. 185에서 재인용.

인간은 과연 어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은 항상 제기되어 왔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지구까지가 우리의 터전인가? 또는, 아직 탐험되지 않은 우주까지인가? 혹은, 이 물리적인 공간은 잠시 거쳐 가는 곳일 뿐 우리의 본향은 다른 곳에 있는가? 또한, 인간의 지위는 어떠한가? 자연의 지배자인가? 청지기인가? 아니면, 자연의 일부에 불과한가? 이러한 질문의 목록은 끝없이 계속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은, 때로는 모순처럼 보이는 문맥도 있지만, 대체로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대답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기독교인다운 생태학적 상상을 할 때, 그 상상 속에는 성경의 대답이 갖는 공통적이고 일관된 요소들이 담겨 있을 것이다.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를 집필한 의도 또한 그러한 요소들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³⁾

본 연구는 그 요소들 중 몇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에 드러난 생태학적 상상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 번째 요소는 ‘창조주’ 신앙, 즉 생태계를 창조하고 인도하는 존재가 있다는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은 지역과 교파를 막론하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요소 중 하나일 것이다. 기독교의 생태학적 상상력은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전제하지 않고는 시작될 수조차 없다. 이는 성경 전반에 흐르는 핵심 요소로서, 시편의 많은 저자들은 이러한 믿음을 자신의 상상력과 결합하여 다음과 같은 찬양으로 승화시켰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95:3-6) 이 생태계는 초월적인 존재에 의해 창조된 것이라는 믿음은 기독교 생태학의 근본에 깔려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할 수 있다. 『나니아 연대기』의 ‘아슬란(Aslan)’은 이러한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상상력으로 구현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창조주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필연적으로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며, 이것은 이 연구에서 강조될 두 번째 요소와 관련이 깊다.

두 번째 요소는 ‘관계의 참된 회복’에 대한 믿음이다. 일반적으로, 세계를 창조한 후 무관심하게 세상을 관망하는 시계공과 같은 신을 상징하는 이신론(理神論)과 달리, 기독교는 창조주의 선하신 섭리와 주권을 인정한다. 기독교는 인간이 죄를 깨닫고, 창조주와의 올바른 관계 맺음을 통해 새로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을 강조한다.⁴⁾ 또한, 성경은 인간과 인간사이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기독교 생태학은, 인간이 인간이 아닌 피조물(the nonhuman)에 대해서도 청지기(stewardship)적인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한다. 성경은 이와 같이 직·간접적으로 삼중적 관계, 즉 창조주 - 인간의 관계, 인간 - 인간의 관계, 인간 - 인간이 아닌 피조물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다. 생태학은 인간이나 자연 그 자체를 독립적으로 연구한다기보다 그 사이의 총체적인 ‘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이므로, 그러한 관계가 작품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이러한 관계를 고찰함에 있어서 기독교는 물리적 차원뿐만 아니라 ‘영적’ 차원도 고려하며, 현실적 차원뿐만 아니라 ‘초월적’ 차원도 고려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성경은 믿음의 차원이 실재(實在)임을 강조한다. 사도 바울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1)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관계의 회복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그것은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경험을 통해 가능하다.⁵⁾

3)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가 말하는 ‘순전한’ 기독교는 여러 방으로 통하는 문들이 있는 현관 마루에 더 가깝습니다. 누군가를 이 마루로 인도할 수 있다면, 제 할 일은 다 한 것입니다.”

4)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3장 <이신론> 참고.

5) ‘기적’이라는 테마는 루이스의 주요 관심사이다. 루이스의 『기적』 참고.

그것은 일종의 ‘여정’과도 같다. 이러한 테마는, 『나니아 연대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나니아’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모험과 사건들을 통해 관계의 회복을 누린다는 설정과, 그들이 참된 관계를 누리는 ‘참 터전’이 영국의 런던이 아니라 나니아라는 설정으로 드러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요소는 ‘창조-타락-구속’의 역사관 중에서 ‘구속의 비전’이다.⁶⁾ 생태계에 대한 성경적인 인식은 그러한 역사관을 내포한다. 이 땅은 선하게 창조되었다(form). 그러나 오염되고 파괴되고 왜곡되었다(deform). 그러나 궁극적으로 창조주의 주권에 의해 다시 구속되고 개혁될 것이다(reform). 생태계가 창조주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믿음과 생태계의 파괴는 기술로 극복될 수 없는 인간의 도덕적 영적 문제라고 믿는다는 점에서 기독교는 무신론적 근대 과학주의와 구분된다. 또한, 생태계는 궁극적으로 재창조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점에서 기독교는 비판적인 환경보호론자들의 주장과도 구분된다. 성경은, 그것이 상징적이든 문자적이든 간에, 역사의 결말이 슬픔과 눈물이 없는 축제로 가득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성경에는 모든 존재들이 공존하는 생태학적 비전이 담겨 있다.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사야 11:6)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은 새로운 성에서 거주하는 성도들의 축제를 묘사하고 있다. 편집된 순서로 본다면, 성경은 에덴동산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새 예루살렘의 비전으로 끝나는 셈이다.⁷⁾ 『나니아 연대기』에도 이러한 성경적 역사관이 투영되어 있다.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에서 이러한 성경적 비전을 더 확장하여 사람과 동물뿐만 아니라, 각종 신화적인 존재들도 함께 기뻐하며⁸⁾ 어울리는 축제의 장을 그려내고 있다. 비록 나니아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처럼 다양한 갈등과 전쟁으로 가득하지만, 결국 영원한 축제로 끝난다(혹은, 끝이 없다)는 점에서 생태계에 대한 성경적 비전을 잘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는 ‘창조주 신앙’이고, 둘째는 ‘참된 관계의 회복’이고, 셋째는 ‘창조-타락-구속’의 역사관 중 ‘구속의 비전’이다. 세 가지 요소 외에도 『나니아 연대기』를 기독교 생태학적 관점에서 해설하고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 틀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위의 세 가지 요소로 『나니아 연대기』의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식의 환원주의적인 설명 방법을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또는 이와 반대로, 『나니아 연대기』 내에 반기독교적인 상상의 요소들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제한된 연구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공통적인 성경적 요소를 정리한 뒤 유용한 지적 도구들을 사용하여 개별적인 작품에 드러난 ‘기독교 생태학적 상상력’의 요소들을 발견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한 분석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통찰이 후속적인 작품 연구와 기독교 문화 콘텐츠의 제작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6) 이러한 역사관에 대해서는 알버트 월터스, 마이클 고크의 『창조 타락 구속』을 참고.

7) Barbara R. Rossing는 *Christianity and ecology*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New Jerusalem can be a resource for ecological hope and justice." 그는 새 예루살렘을 "A Vision for Urban Life"의 관점으로 분석하고 있다.

8) ‘기쁨’이라는 테마 또한 루이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다. 루이스의 『예기치 못한 기쁨』 참고.

II. 나니아의 창조자와 관계 맺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자연(自然)’이라는 단어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피조물(被造物)’이라는 단어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스스로 그러한 것(존재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뿐이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출애굽기 3:14) 근대 과학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연은 스스로 존재하게 된 우연의 산물이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자연은 창조주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 하에 창조된 피조물이다.

그렇다면 나니아는 어떠한가? 그 신기하고 다채로운 세계는 누가 창조하였는가? 어떤 세계에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종교적인 믿음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확고한 무신론자는 ‘이 세계의 창조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것이다. 그러나 『나니아 연대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전제하고 있는 작품이다. 어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역사(연대기)가 그 세계의 창조주의 사역(혹은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맺는다는 설정은, 성경이 기술하는 역사가 하나님과 사역과 연관관계를 맺는다는 사실과 유비적인(analogous) 관계를 갖는다. 만약, 우리가 기독교 생태학에서 ‘창조주 신앙’이 가장 보편적이고 확고한 전제 중의 하나라고 인정한다면, 『나니아 연대기』는 그 전제를 작품 전체의 틀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창조주’에 대한 묘사가 있다고 해서 그 작품을 선불리 ‘기독교 생태학’이라는 범주로 분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슬람교를 비롯한 각종 종교적 교리를 반영하는 작품 속에서도 ‘창조주 신앙’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될 필요가 있다. 나니아의 창조주는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그 존재는 얼마나 직접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가? 아니면, 덜 직접적인 알레고리(allegory)로 나타나는가? 그 존재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더 나아가, 그 존재는 나니아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혹은 받고 있는가)?

나니아의 창조주는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 아슬란이다. 창조주를 한낱 짐승, 그것도 육식 짐승으로 상상하는 것은 혹시 신성모독적인 행위가 아닐까? 그러나 그러한 우려는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묘사되는 아슬란의 면모를 무시할 때에만 가능하다. 총 7권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의 『나니아 연대기』에서 아슬란에 대한 내용을 모두 발췌하기란 지면 관계상 소모적인 일이므로 몇 군데만 선택적으로 발췌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비버 씨가 말했다.

“안전이라고요? 지금 우리 집사람이 한 말 못 들었나요? 누가 안전하다고 했죠? 당연히 안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좋은 분이세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분은 왕이신걸요.” (사자와 마녀와 옷장 97)

“또 누가 알겠어요? 아슬란 님도 만날 수 있을지!” (말과 소년 94)

“나는 나 자신이다!”...(중략)... 샬스타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유령이든, 자기를 잡아먹기로 작정한 짐승이든 간에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하지만 색다른 느낌 때문에 온몸이 떨려 왔다. 동시에 마음도 기쁨으로 가득 찼다. (말 191)

“오, 참 아름다우시군요. 원하신다면 저를 잡아먹으셔도 좋아요. 다른 짐승에게 먹히느니 당신께 잡아

먹히고 싶어요.” (말과 소년 232)

“저는 아슬란 님의 나라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 위대한 사자는 항상 바다 건너 동쪽에서 오시거든요.”
(새벽 출정호의 항해 34)

“하지만 아슬란 님은 날 알아. 그분은 위대한 사자야. 바다 황제의 아들이기도 하고. 나를 구해 주고 나니아도 구하셨지. 우린 다들 아슬란 님을 만나 봤어. 루시가 가장 자주 보았어. 어쩌면 우리의 목적지가 아슬란 님의 나라인지도 몰라.” (새벽 출정호의 항해 144)

아슬란은 나니아 세계의 창조주인 동시에 구속자이다. 루이스는 한 텍사스 소녀가 던진 질문에 대해 아슬란은 “산타클로스와 같은 시기에 나타났고, 자신을 황제의 아들이라 말했고, 죄인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 후 부활했고, 종종 양에 비유되는 이”(마사 새몬스 174)라고 답변을 보냈다. 비록, 인간이 아닌 사자의 몸이라는 점이 차이가 있지만, 독자들은 위와 같은 루이스의 상징에 거부감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니아라는 장소는 세계 대전 당시 영국 런던과 같은 ‘일차적 세계’가 아니라 ‘이차적 세계’이기에, 독자들에게 있어서 변형된 외양을 상상하는 일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창조주이자 구속자인 아슬란은 나니아 생태계와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가?

“왕자님들께서 들으신 옛 나니아 이야기는 모두 사실입니다. 나니아는 인간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슬란의 나라, 깨어 있는 나무들과 눈에 보이는 나리아스들의 나라, 파우누스와 사티로스, 난쟁이와 거인, 여러 신들과 켄타우루스와 말하는 동물들의 나라였습니다.” (캐스피언 67)

나니아는 ‘인간만을 위한 땅’이 아니었다. 그곳은 모든 존재들이 ‘공존’하는 곳이다. 기독교 사상가인 루이스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기독교를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라고 폄하하는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할 만한 대목이다. 비록, 나니아의 역사에서 주인공 인간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다른 존재들에 대해 ‘존재론적 우위’를 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나니아는 다양한 존재들의 공존과 협력이 두드러진 세계였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존재들을 고려해본다면, 나니아의 세계는 우리의 현실 세계보다 훨씬 더 복잡한 측면을 가진다. 새몬스에 따르면, 『나니아 연대기』에 등장하는 생물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걸어다니는 나무, 나이어드, 파우누스, 사티로스, 난쟁이, 거인, 신, 켄타우루스, 말하는 짐승 (2005: 103).” 루이스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신화와 전설 속 각종 상상의 존재들을 끌어들이어 나니아 생태계를 창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생태계가 아무리 복잡한 체계와 존재들로 구성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여전히 왕 아슬란이 있다. 이러한 중심성은 현실 생태계를 바라보는 기독교의 관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변증한다. 만약, 『나니아 연대기』에서 그러한 중심성이 상실된다면, 이 작품은 혼합주의 혹은 다원주의로 인식될 것이다.

현실의 세계에서 찾아온 네 명의 아이들(‘피터’, ‘에드먼드’, ‘수잔’, ‘루시’)은 나니아의 창조주 아슬란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만약 이 작품 속에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 없었다면, 작품이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영향력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전혀 없는 나니아는 우리의 현실세계와 무관한 ‘이차 세계’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등장인물과 아슬란사이 맺어지는 관계의 특징과 양상은 분석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특히, 많은 루이스 학자들과 독자들 또한 『사자와

마녀와 옷장』에서 등장인물들이 아슬란의 이름을 처음 듣는 장면과 아슬란을 처음으로 조우하는 장면을 인상 깊게 여긴다. 루이스는 한 페이지 내내 아슬란의 이름을 처음 듣는 네 아이들의 각기 다른 심리적 반응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 때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아이들은 여러분보다 더 아슬란이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비버가 얘기를 끝내자마자 다들 아주 색다른 느낌에 사로잡혔다. ...(중략)... 아슬란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아이들은 저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꿈틀 솟는 것을 느꼈다. 에드먼드는 까닭 모를 공포를 느꼈고, 피터는 갑자기 솟구치는 용기와 모험심을 느꼈다. 수잔은 뭔가 달콤한 향기나 감미로운 선율이 자기 곁으로 확 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루시는 아침에 일어나 그 날이 방학 첫날이라거나 여름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에 느끼는 그런 기분에 휩싸였다. (사자와 마녀와 옷장 84)

세계적인 종교학자 루돌프 오토(Rudolf Otto)는 ‘성스러운’ 존재, 즉 ‘누멘(numen)적인 것’은 여러 요소를 갖는다고 주장했는데, 거기에는 ‘진율’, ‘압도성’, ‘활력성’, ‘신비성’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된다.⁹⁾ 아이들의 다양한 반응, 즉 “꿈틀꿈틀 솟는 것(something jump)”, “까닭모를 공포(a sensation of mysterious horror)”, “용기와 모험심(brave and adventurous)” 등은 오토가 언급한 성스러움의 특징들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그러나 아슬란은 단순히 성스럽기만 한 존재로 그치지 않는다. 수잔의 느낌인 “달콤한 향기나 감미로운 선율(delicious smell or some delightful strain of music)”과 루시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느낌인 “방학첫날(the beginning of the holidays)”과 “여름이 시작되는 날(the beginning of summer)”은 다른 묘사보다 좀 더 일상적인 동시에 기쁨과 즐거움의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 “근엄하고 엄숙하고 압도적인 눈(great, royal, solemn, overwhelming eye)”을 가진 사자 아슬란을 처음 만나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느낌이 공존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아이들은 “착하면서 동시에 무서운 존재(good and terrible at the same time)”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아이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으나 그들은 아슬란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금세 “더없이 기쁘고 편안했으며(glad and quiet)”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didn't seem awkward).” 이처럼 아슬란은 성스러움과 친근함을 동시에 지닌 매력적인 존재이다. 그는 이신론의 신과 달리 피조물과 아이들의 감정을 체휼하며 그들과 깊게 교제하고 어울릴 줄 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는 신성함과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¹⁰⁾ 피터 J. 새클(Peter J. Schakel)에 따르면, “아슬란은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지만, 루이스의 가정적인 세계에서 그는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다른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하는 것이다.

그 아이들이 마치 예수님의 직속 제자처럼 특별한 존재들이라면, 그들에게는 어떠한 역할이 주어지는가? 그들은 아슬란과의 조우와 교제를 통해 어떤 체험을 하는가? 새몬스는 ‘나니아’에서 인간의 역할을 ‘임무, 교육, 복종’ 등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2005: 144). 흥미로운 점은, 임무를 주는 대상, 교육을 시키는 대상, 복종을 요구하는 대상이 모두 아슬란을 지칭한다는 점이다. 작품에서 등장인물들이 어른이 아닌 ‘어린이’로 설정된 것은,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욱 위의 세 가지 역할에 적합하기 때문일 것이다. 루이스는 또한 나니아로 들어가는 문을 ‘옷장’으로 설정함으로써 아이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을 제공하고 있다. 숨바꼭질을 하는 어린이들 외에 과연 어떤 어린이 옷장에 옹크리고 들어갈 생

9) 루돌프 오토의 『성스러움의 의미』 4장 <두려운 신비> 참고.

10) 아슬란의 성스러움은 각종 ‘예언’과 ‘심오한 마법(the Deep Magic)’을 통해 더 강력하게 표상된다.

각을 할 수 있겠는가? 사실, 전반적으로 『나니아 연대기』에서 어른의 역할은 부정적으로 묘사되며, 특히 아이들을 사회에 적합한 어른으로 교육시켜 나가는 곳, 즉 사회화(socialization) 혹은 문명화(civilization)가 이루어지는 ‘학교’는 대개 억압으로 가득 찬 끔찍한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¹¹⁾ 거칠게 표현해서, 작품에서 학교를 현대 문화(culture)의 부정적 상징으로 본다면, 나니아는 자연(nature)의 긍정적 상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¹²⁾ 루이스가 자신의 스승을 본 따서 만든 인물은 “디고리” 교수는 아이들을 앞에 두고 “이거야 원, 요즘 학교에서는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지?”라고 말한다. 작품 속에서 아슬란은 아이들에게 학교 교사보다 더 훌륭한 교육자이자 스승으로 묘사되고 있다. 실제로, 작품에서 등장하는 아이들은 끊임없이 아슬란으로부터 도덕적 혹은 영적 교육을 받는다.¹³⁾

정리하자면, 아슬란은 일반적으로 나니아의 피조물들에게 창조주이자 구원자로 인정받으며, ‘현실 세계’에서 온 아이들에게는 스승이자 멘토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언제나 아슬란에게 반역하는 존재가 있다는 점 또한 강조되어야 한다. ‘하얀 마녀’와 그녀에게 속해있는 무리들(예를 들어, 난쟁이나 늑대들)은 아슬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반역한다. 또한, 비록 아슬란과 조우했던 인간들 중에서도 아슬란과 멀어지거나 그로부터 배운 것들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처음에는 아슬란을 꺼려하다가 후에 따르는 경우도 있다. 즉, 아슬란과 나니아 생태계 사이의 관계나 아슬란과 등장인물들 사이의 관계 모두 유동적인 측면이 있으며 양면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독자로서 하여금 긴장감을 유발시킨다. 만약, 존재들 사이의 관계가 고정되어 있거나 확실적이라면, 『나니아 연대기』는 진부한 이분법적 작품으로 평가받았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니아 연대기』의 설정은 마치 현실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실적(realistic)’이라는 면에서 설득력이 있다.

III. 관계의 회복 경험하기

인간을 향한 창조주의 목적과 인간에게 부여된 ‘독특한’ 지위로 인해 인간은 피조물 세계에 대해서 ‘특권’과 ‘책임’을 동시에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인류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 자신의 특권을 남용하는 반면 책임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앞에서 언급했던 삼중적 관계는 파괴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 파괴의 근본 원인은 창조주에 대한 반역에 있다. 생태윤리학자 제임스 내쉬(James A. Nash)는 “죄의 뿌리는 이기주의”며 “죄는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는 주권자로부터 자율성을 선언하는 것”(1997: 187)이라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생태학적 측면에서 죄란 “창조주가 가치를 부여하고 사랑한 생태계 안에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수많은 피조물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해야 할 책임성 있는 대표답게 살지 않는 것”(1997: 188)이다. 더 간략하게 요약하면, 죄란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혹은 태도)’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 생태학적 의미에서 볼 때, 인류는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무책임한 죄를 짓고 있으며, 그 죄로 인해 수많은 피조물들이 고통 받고 있다.

11) 루이스는 『인간 폐지』에서 당시 영국 교육의 문제점을 조리 있게 비판한다.

12) 『나니아 연대기』에 학교가 부정적으로 묘사된 장면은 많은데, 특히 『은 의자』는 참고할 만 하다. 주인공 질 폴과 유스터스 스크러브는 당시 영국의 진보적인 ‘실험학교’의 생활을 혐오하여 학교를 탈출하여 나니아로 들어간다.

13) 『나니아 연대기』 중 이러한 교육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책은 『새벽 출정호의 항해』이다. ‘유스터스’는 아슬란을 통해 엄청난 영적·인격적 변화를 경험한다.

옷장 속 세계인 나니아에서도 이러한 현실이 극적으로 투영되어 있다. 나니아에서는 저주로 인해 영원한 겨울이 지속되고 있다. 계절의 순환이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태계의 법칙이 정지되어 있다. 우리의 현실세계에서 기후의 급격한 변화가 심각한 생태학적 문제일뿐더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문제라면,¹⁴⁾ 나니아의 세계에서는 기후의 무변화가 그러한 문제로 인식된다. 나니아에서 겨울은 지속되고 있지만 ‘크리스마스’는 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설정을 통해 독자 아이들은 나니아의 생태계의 위기를 더욱 실감할 것이다. ‘크리스마스’가 없다는 것은 ‘축제 혹은 선물의 상실’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나니아의 현실은 자연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동심의 위기이고, 넓게 보면 문화의 위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나니아의 생태적 위기는 악한 세력(하얀 마녀)의 반역으로 인해 기인되었다.¹⁵⁾ 이러한 설정은 사탄의 반역으로 인해 현실 세계가 타락하였다는 성경적 사실과 맥을 같이 한다. 피조물의 악과 죄의 문제가 생태계의 위기를 기인했다는 설정은 기독교 생태학이 가지는 독특한 문제 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창조주와의 관계 파괴가 생태학적 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면,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열쇠 또한 창조주와의 관계 회복에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관계 회복은 피조물끼리의 관계의 회복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수직적 관계)’과 ‘이웃 사랑(수평적 관계)’를 동시에 강조한 사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비록, 예수님이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강조한 내용이 복음서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의 서신을 통해 우리는 그 관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20)

『사자와 마녀와 옷장』에서도 아슬란의 등장과 구속을 통해 관계의 회복이 찾아온다. 먼저, 아슬란과 아이들 혹은 나니아의 피조물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다. 둘째, 아이들 사이의 관계도 회복된다. 마지막으로, 나니아의 생태계에 걸려있던 저주가 풀림으로서 나니아 생태계에 화평이 찾아온다. 이러한 화평은 구체적인 몇 가지 현상을 동반하는데 예를 들어, 계절의 변화와 같은 자연법칙이 회복된다는 점과 예언 혹은 ‘심오한 마법(the Deep Magic)’이 성취된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다. 세 가지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는 작품만 고려해볼 때, 애초부터 아슬란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등장인물, 예컨대 루시나 ‘비버 부부’ 등은 끝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관계의 회복’이라는 테마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루시의 오빠인 에드먼드는 이러한 테마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그는 루시가 나니아의 존재를 증언했을 때부터 “악의”를 가지고 루시를 놀렸다. 또한, 에드먼드는 자신이 나니아에 다녀온 이후에도 루시에 대해 “자기 머릿속에서 더 이상 짜낼 수 없을 만큼 비열하고 못된 짓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루시에게 톡톡히 창피를 주기로 작정한 것이다(57).” 에드먼드는 나니아에서 “터키 젤리(Turkish delight)”에 대한 탐욕과 루시보다 “파우누스에 대해 루시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려는”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었다.¹⁶⁾ 그는 ‘하얀마녀’의 편이 된 이래로 아슬란에 대한 부정적인 이

14) David G. Hallman는 *Christianity and Ecology*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Climate change can be seen as a metaphor of the fractured relationship between human societies and God's creation.”

15) 새몬스에 따르면, 하얀마녀는 ‘제이디스’라고도 불리는데 그 마녀는 아담의 첫 번째 아내였던 릴리스와 진의 피와 함께 거인 족의 피를 이어받은 것으로 설명된다. 마녀는 한때 나니아의 여왕이었으나 탐욕에 눈이 멀어 자신의 언니를 죽였다(2005: 268).

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비버’의 집에서 탈출하여 아슬란을 반역하는 하얀마녀의 무리에 가담하고 만다. 에드먼드를 되돌리기 위해 아슬란은 스스로 희생되는 길을 선택하는데, 아슬란은 ‘심오한 마법(deep magic)’에 의해 부활하게 된다. 아슬란의 희생으로 완전히 변화된 에드먼드는 아슬란과 함께 “피투성이”가 되도록 하얀마녀의 일행과 전투를 벌인다. 감격한 피터는 “에드먼드가 아니었으면 우린 지고 말았을 겁니다(210).” 라고 고백한다. 이처럼 에드먼드는 성숙한 인물로 변화되었다. 루이스는 작품 속 해설자(narrator)의 목소리로 에드먼드에 대해 이렇게 덧붙인다. “사실 에드먼드는 그 끔찍한 학교의 첫 학기가 시작한 이후로 비뚤어지기 시작했다. 에드먼드는 이제 원래의 제 모습을 되찾았고, 얼굴에도 그런 표정이 완전히 나타나 있었다(212).” 즉, 에드먼드의 내면은 원래대로 ‘회복’된 것이고, 그 회복이 ‘관계의 회복’을 가져다 준 것이다.

나니아의 모험을 통해서 한 아이의 내면뿐만 아니라 아이들 사이의 전반적인 관계 또한 한층 성숙해진다. 아이들이 ‘디고리(Digory)’ 교수 집에 머문 첫 날 에드먼드와 수잔은 가벼운 말다툼을 벌인다. 에드먼드는 성질을 부리고, 수잔은 “엄마처럼” 잔소리를 했기 때문이다. 또한, 루시가 처음 나니아의 존재를 증언했을 때 다른 아이들은 “거짓말 한 적이 없었던” 루시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훈계하고 핀잔을 준다. 특히 에드먼드는 루시만 보면 “놀려 댄다.” ‘하얀 마녀’가 에드먼드에게 형제들을 데려오라고 유혹했을 때 에드먼드가 “개들은 별 볼일 없는 애들”이라고 폄하하는 대목에서도 형제들끼리의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피터와 에드먼드가 울고 있는 루시를 놓고 서로 싸우는 장면에서도 그들의 불안한 관계는 분명히 드러난다. 피터는 에드먼드를 심하게 비난한다. “넌 생각도 없는 애야. 그냥 심술이나 부리고, 너보다 작은 애들이면 죄다 못살게 굴잖아(58).” 이처럼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중심에는 에드먼드가 있었고, 전반적으로 형제들의 관계는 돈독하다고 볼 수 없는 사이였다. 그러나 아슬란과 관련된 일련의 모험과 경험을 통해 형제들의 관계는 매우 성숙해진다. 이 점은 아이들이 ‘하얀 마녀’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나니아의 왕과 여왕으로 임명된 이후의 삶에 대한 묘사에서 잘 드러난다. 그들은 “행복하고 기쁜 나날”을 보냈다는 점과, 서로를 왕과 여왕으로 존중하는 ‘궁정식’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함께 즐겁게 사냥을 다닌다는 점 등은 그들의 한층 성숙해지고 어른스러워진 인격과 관계를 암시한다.

또한, 관계의 ‘회복’이라는 테마는 나니아의 생태계의 회복을 내포한다. 인물들의 편에서 관계의 회복이 인격의 성숙으로 드러난다면, 나니아 생태계의 측면에서 관계의 회복은 나니아에 속해있는 자연법칙의 회복과 예언 혹은 심오한 마법의 성취(악에 대한 선의 승리)로 나타난다. 자연법칙의 회복은 계절의 순환, 즉 나니아에 100년간 지속되던 겨울이 가고 봄(혹은 여름)이 찾아온다는 설정에서 나타난다. 루이스는 등장인물들이 얼마나 겨울이 지나가기를 기대하는지에 대해, 그리고 얼마나 봄을 즐기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한다. 생명의 색인 ‘초록색’과 마녀로 상징되는 죽음과 동결의 색인 ‘하얀색’이 대비되고 있다.

초록빛을 띤 곳이 점점 넓어지면서 눈 덮인 곳은 줄어들었다. 가면 갈수록 나무들이 눈옷을 후두두 떨쳐 버리고 있었다. 이내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하얀 형제 대신 질푸른 전나무들과 짙이 나온 벌거숭이 참나무의 검은 가지들, 너도밤나무와 느릅나무 들이 눈에 들어왔다. (143)

16) 많은 기독교 사상가들은 인간의 ‘탐욕’과 ‘교만’을 생태계 파괴의 원인으로 꼽는다. 예를 들어 존 스토틀에 따르면, “생태계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중략)... 인간의 탐욕에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생명의 상징인 ‘초록색’은 마녀에게 있어서 죽음을 의미한다. 마녀의 난쟁이는 벌써 이렇게 외친다. “이건 눈이 녹는 정도가 아녜요, 봄이라고요. 이젠 어떡하죠? 여왕님의 겨울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이건 아슬란이 한 짓입니다(146).” “불과 몇 시간 만에 온 숲이 1월에서 5월로 변해버린” 이러한 계절의 극적인 변화는 나니아의 피조물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눈에도 신비롭고 즐거운 현상이다. 그 신비로운 현상은 아이들의 내면에서 아슬란에 대한 신뢰와 ‘하얀 마녀’에 대한 불신을 동시에 강화시킨다. “모두들 이 신비한 봄이 시작되자 마녀의 흥계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이처럼 창조주의 사역이 창조세계의 자연법칙에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은 기독교 생태학의 근본 전제 중 하나이다. 제임스 사이어에 따르면, 창조세계는 폐쇄적인 체계가 아닌 창조주의 간섭과 주권에 대해 열려 있는 개방적인 체계이다(2007: 40). 그러므로 우리는 아슬란의 등장과 나니아의 계절의 변화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할 때 루이스의 작품 구성에 명확한 기독교 생태학적 상상력이 작용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나니아 생태계의 회복을 가능케 한 아슬란의 등장은 우발적인 것인가? 작품 전반에 흐르는 ‘예언’과 ‘심오한 마법’의 존재가 등장인물들로 하여금 아슬란의 등장을 예견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특히 ‘비버’의 언행을 통해 잘 드러난다. 그는 만난 적 없는 아슬란을 떠올리며 담대하게 선포한다.

“...(중략)...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겁니다. 옛 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슬란이 오실 때 악이 바로잡히리라.
그의 우렁찬 포효에 슬픔이 사라지고,
그가 이를 드러낼 때에 겨울은 죽음을 맞이하며,
그가 갈기를 흔들 때에 봄은 다시 찾아오리라.

여러분도 그분을 보면 깨달을 겁니다.” (96)

비버가 외우고 있는 “옛 시”의 시어대로 아슬란은 나니아에 등장한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반역자는 마녀에게 속한다는” “바다 황제의 마법(what is engraved in the sceptre of the Emperor-beyond-the-Sea)”¹⁷⁾에 관한 것이었다(167). 그 마법에 따르면, 에드먼드는 마녀의 소유였다. 만약 아슬란이 그 마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니아는 “불과 물로 멸망”하게 된다고 예언되어 있다. 비록, 아슬란은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이지만, 결코 그 마법을 거스르지 않는다. 수잔이 “아슬란님도 마법에 대항하실 수(can work against) 없는 거예요?(168)”라고 묻자, 아슬란은 “쨍그린 얼굴로 수잔을 돌아보며 말했다.” “황제의 마법에 대항하라고?” 아슬란은 마법에 철저히 순종한다. 그래서 그는 마녀의 “희생 제물”이 되고 만다. 그러나 아슬란은 “태초 이전의 고요와 어둠이 존재하던 때”에 있었던 “더 심오한 마법”으로 인해 부활한다. 그 마법이란 “결백한 자가 반역자의 죄를 대신해서 스스로 목숨을 바치면 돌탁자(the Stone Table)는 깨지고 죽음 그 자체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다(192).”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하듯이, 마법을 통한 아슬란의 대속적 죽음은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유

17) 사실, 『나니아 연대기』에 “바다 황제”의 정체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없다. 다만, ‘신’으로서 아슬란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비적 관계를 이룬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이 골고다 언덕 위에서 이루어졌다면, 아슬란의 처형은 ‘돌 탁자’ 위에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면, 아슬란은 ‘바다 황제’의 “더 심오한 마법”에 순종했다. 이제, 부활한 아슬란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시고 ‘지상명령’을 분부 하셨듯이, 네 명의 아이들과 나니아의 피조물들 중 자신의 부하들을 불러 모은다. 아슬란은 마녀의 사악한 마법에 의해 석상이 된 피조물들로 가득한 마녀의 성에 있는 딸로 가서 피조물들을 부활시킨다. 아슬란의 “따뜻한 입김(a prodigious yawn)”에 의해 “사방에서 석상들이 되살아났다.” 아슬란의 부활은 다른 선한 피조물들의 부활로 이어진 것이다. 이처럼 마법에 대한 아슬란의 순종은, 선한 피조물들의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마녀의 예상과 달리, 오히려 선한 피조물들의 회복을 가져왔고, 그들은 모두 마녀와의 전투를 위해 아슬란을 중심으로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제 그들은 악에 대한 완전한 승리와 새롭게 도래하게 될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에 사로잡혀 있다. 이처럼 그들의 회복된 관계는 축제적 공존의 전제 조건이 된다.

IV. 축제적 공존의 비전 누리기

‘들어가며’에서 밝혔듯이, 성경에는 생태학적인 비전이 제시되어 있다. 이사야를 통해 우리는 사자와 양과 같은 포식관계에 있는 동물들까지도 공존하는 예언을 듣게 되며 요한계시록을 통해 사망과 애통이 없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계시를 듣게 된다. 비록, 그와 같은 생태학적 비전에 대해 제시된 본문에 ‘축제’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비전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곧 축제의 현상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우리가 기독교 생태학적 비전을 ‘축제적 공존’이라는 용어로 요약할 수 있는 이유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공존하는 모든 존재들 사이에는 어떠한 갈등과 불화도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화평과 기쁨이 가득하다. 그러므로 그들의 공존 자체는 하나의 축제가 된다.

백과사전적 의미를 따르자면, 축제의 중요한 요소는 ‘음악’, ‘춤’, ‘음식’ 등이 있다. 물론, 축제를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위의 물리적 요소들보다 공동체적인 ‘친교’ 혹은 ‘교제’라는 요소와 내적인 ‘기쁨’이나 ‘즐거움’ 등의 정신적인 요소일 것이다. 그렇다면 나니아에서 이러한 축제의 요소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산타클로스가 100년 만에 나니아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사건은 후에 있을 성스러운 축제의 전조라고 할 수 있다. 아이들 앞에 나타난 산타클로스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환희에 차 있고, 너무나 생생해서 모두가 말을 잃고 그대로 서 있었다(129).” 그는 각자에게 필요한 선물을 준 후 이렇게 외친다. “메리 크리스마스! 참된 왕이여, 만세!(132)” 이 대목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슬란으로 치환되어 있을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나니아인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언어적으로 볼 때 모순이지만, 그것은 이 작품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¹⁸⁾ 루이스는 ‘크리스마스’가 독자에 대해 갖고 있는 기존의 긍정적 이미지와 심리적 효과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여기서 ‘크리스마스’는 기쁘고 즐거운 축제, 한편으로는 성스러운 축제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18) 만약 언어적으로 올바르게 표현하려면, 아슬란이라는 단어와 ‘축일(mas)’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아슬란마스’라고 표현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표현하면 독자의 심리적인 효과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접할 때 보다 작을 것이다.

플롯이 진행되면서 마녀가 힘을 잃을수록, 동시에 이슬란의 승리가 가까워질수록 축제적인 분위기는 더욱 두드러진다. 먼저, 음악적인 요소와 시각적인 요소가 두드러지는 장면은 이슬란이 마녀의 저주로 인해 얼어붙은 석상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장면이다. “사방에서 석상들이 되살아나자” “죽은 듯이 새 하얗던 안뜰은 온통 눈부신 빛깔로 가득했다(199).” 그리고 그곳에서 “죽음 같은 정적은 사라지고 행복에 겨운 동물들의 울음소리, ...(중략)... 노랫소리와 웃음소리(happy roarings, brayings, yelpings, barkings, squealings, cooings, neighings, stampings, shouts, hurrahs, songs and laughter)로 온 뜰이 떠나갈 듯했다(199).” 그리고 이 장면은 자연스럽게 루시와 ‘파우누스’의 재회로 이어지는데 그들은 “손을 맞잡고 기쁨에 겨워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었다(202).” 이처럼 온갖 존재들이 단순히 공존할 뿐만 아니라 조화로움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로 함께 노래 부르고 춤을 추는 축제의 현장은 성경적인 생태학적 비전이 투영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마녀는 이러한 모습을 좋아할 리가 없다. 만약, 이슬란이 축제의 ‘디렉터(director)’ 혹은 ‘조직자(organizer)’라면 마녀는 끔찍한 ‘스포일러(spoiler)’로 상징될 수 있다. 마녀는 ‘산타클로스’와 같은 존재를 혐오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이러한 모습은 루시 일행을 쫓던 마녀가 우연히 “즐거운 파티”를 즐기고 있던 “다람쥐 가족과 사티로스 둘, 난쟁이 한 명, 늑은 여우 한 마리”를 마주하는 장면에서 분명히 드러난다(137). 마녀는 격노한다. “저 모든 음식이며 쓰레기, 이 흥청망청한 분위기(all this gluttony, this waste, this self-indulgence)는 대체 무슨 뜻이지? 이게 다 어디서 난 거냐고!” 마녀에게 ‘산타클로스’의 선물은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며, 축제는 “흥청망청한” 것이다. 그 선물들은 ‘산타클로스’에게 받은 것이라는 대답을 들은 마녀는 폭발하고 만다. “뭐라고? 그 영감태기는 여태껏 여기 온 적이 없어! 절대로 왔을 리가 없다고!(139)” 결국 그들은 마녀의 저주를 받아 모두 석상이 되고 만다. 그렇다면 나니아에서 왜 마녀는 축제를 즐길 줄 모르는 존재일까? 그것은 마녀의 탐욕과 교만 때문이다.¹⁹⁾ 마녀는 축제의 기본적인 속성, 즉 기꺼이 나누고 베푸는 특징을 받아들이지 수가 없다. 마녀는 오직 자신을 위해 쌓고, 흠치고, 빼앗는 행위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비버의 혼잣말은 이와 같은 마녀의 속성에 대해 많은 것을 암시한다. “마녀는 황제의 사형 집행인(the Emperor’s hangman)이었구나. 그래서 자신이 여왕이라는 상상에 빠지게 된 거로군(167).” 그러나 이슬란은 겸손하다. 한 사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슬란 님의 좋은 점이 바로 그거라고. 오만하지도 않고 냉정하지도 않지(206).” 이슬란은 마녀와 달리 자신을 낮추어 인물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 이슬란은 부활 후 루시, 수잔과 “행복한 웃음을 터뜨리며 함께 털과 팔과 다리를 포개고 뒹굴었다(193).” 이것은 “나니아가 아닌 곳에서는 어느 누구도 맛볼 수 없는 장난”이며 그들은 “전혀 피곤하거나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았다(193).” 그러므로 이슬란을 통해, 그리고 이슬란과 함께 영원한 축제는 가능한 것이다.

『사자와 마녀와 옷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축제의 결정체는 작품의 결말부에서 드러난다. 그것은 네 명의 인물들이 왕과 여왕으로 등극한 것을 기념하여 “케어 패러벨 성(The castle of Cair Paravel)”에서 벌어진 “성대한 잔치”이다. “유쾌하게 먹고 마시고, 춤추고, 황금이 번쩍이고, 포도주가 넘쳐 흐르는 가운데 성 안에서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다(215). 그러나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 이 장면은 하나의 복선으로 이어진다. “이슬란은 이 흥겨운 분위기에서 벗어나 소리 없이 자리를 떴다(215).” 그는 “나니아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설정은 작품이 이상적

19)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을 ‘가장 큰 죄’로 다룬다.

인 비전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막고, 독자들로 하여금 현실적인 관점을 견지하도록 돕는다. 아무리 나니아라고 해도 아슬란과 영원히 함께 축제를 벌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다고 해도 이 세상은 ‘본향’이 아니라 ‘여관’과 같은 곳이라는 루이스의 철학과 상통한다. 나니아에서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네 명의 아이들(왕과 여왕)은 모두 다시 옷장을 통해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된다. 그들은 비록 나니아에서 왕과 여왕으로서 축제와 같은 나날들을 보냈지만, 현실에서는 다시 어린아이로 되돌아왔다. 잔소리꾼인 “매크리디 부인과 방문객들은 아직도 복도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221).”

그렇다면 이러한 결말은 독자들에게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까? 그 효과는 ‘적용’에 관한 고민과 관련된 것이다. 아이들은 나니아에서 일종의 비전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변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에게 남은 과제는, 그들의 성숙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내면으로 어떻게 변하지 않은 외적인 현실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요한계시록의 환상에 심취한 성도가 성경책을 덮은 뒤 ‘이제 어떻게 현실 속에서 새 예루살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과 같다. 기독교의 생태학적 비전은 생태학적 실천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비전은 가상적 삶이 아닌 현실의 삶을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²⁰⁾ 어떻게 우리는 ‘현실 속에서’ 축제적 공존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옷장 속 이야기’는 옷장 밖 우리에게 더 중대한 질문을 남긴다.

V. 옷장 밖으로 나서며

루이스의 옷장 안에는 옷장 밖보다 더 크고 더 복잡한 생태계가 있었다. 그 곳에서도 창조주와 피조물들이 있었고, 또한 반역한 피조물들도 있었다. 그 곳에서도 선과 악 사이의 처절한 전투가 있었다. 그러나 선이 승리하였다. 승리한 자들은 축제를 누렸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 가운데에는 창조주이자 구속자가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는 기독교적 상상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이야기는, 모든 좋은 이야기들이 그러하듯이, 옷장 밖의 생태계에서도 진행 중인 ‘그의 이야기(History)’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좋은 이야기들은 턱없이 부족하다. 신학 서적과 신앙 서적은 넘쳐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생태계에 대한 기독교적 상상력이 녹아나는 이야기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은 왜일까?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녹색 성장’, ‘녹색 기술’, ‘녹색 교육’, ‘녹색 신학’ 등 ‘생태학적 문제’들이 시대의 화두가 된 이때에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떠한 녹색 상상을 펼치고 있는가? 교리를 강요하는 식의 전도와 변증이 아닌, 참신한 이미지와 탄탄한 플롯을 바탕으로 진리를 이야기로 전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즉, 성경이 제시하는 독특한 생태학적 관점과 입장은, 어떤 이들의 우려와 달리, 매력적이며 또한 설득력이 있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루이스의 생태학적 상상력에 대한 후속연구와 그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 창작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루이스는 『새벽 출정호의 항해』에서 루시의 목소리를 빌려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듯하다. 인류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the loveliest story)”는 바로 “컵과 검과 나무와 푸른 언덕에 관한 이야기(a cup and a sword and a tree and a green hill)”라고.

20) Rossing은 *Christianity and Ecology*에서 새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을 “Vision for Today”로서 다룬다.

참고문헌

- 김옥동, (2003). 『생태학적 상상력 :환경위기 시대의 문학과 문화』. 서울: 나무심는사람.
- 문화선교연구원, (2006). 『기독교 문화와 상상력』.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송태현, (2006). 우리 시대에 왜 C. S. 루이스인가?, 『기독교사상』, 통권567호, 대한기독교서회.
- 송태현, (2007). C. S. 루이스를 통해 본 신화와 기독교의 관계, 『신앙과학문』, 제12권 제3호, 기독교학문연구회.
- 임홍빈, (2009). 『기독교 생태신학. 1』. 서울: 터닝포인트.
- 조용훈, (2002). 『동서양의 자연관과 기독교 환경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추태화, (2001). 기독교 아동문학의 가능성 :C.S.루이스의 동화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어린이 문학교육연구』, 제2권 제1호, 한국 어린이문학 교육학회.
- 추태화, (2005). 대중문화의 상상력에 대한 신학적 성찰 :4가지 소설을 중심으로, 『신학지평』, 제18집.
- 황치복, (2009). 판타지 문학의 성서적 함의와 풍유: C. 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문학과 종교』 제 13 권 3호, 한국문학과종교학회.
- 홍종락, (2005). 『나니아 나라를 찾아서』. 서울: 홍성사.
- Buber, Martin. *I and Thou*. 김천배 역 (2000). 『나와 너』,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Caughy, Shanna. *Revisiting Narnia*. 김지현 역 (2006). 『다시 찾아간 나니아』.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 Ditchfield, Christin. *A Family Guide to Narnia* 김의경 역 (2005). 『나니아가 읽어주는 성경』. 서울: 크립스.
- Duriez, Colin. *The C.S Lewis Chronicles*. 이용복 역 (2005). 『나니아 연대기 :해설집』. 서울: 규장.
- Edwards, Bruce L. *Not-a-Tame Lion*. 김은희 역 (2008). 『길들여지지 않는 사자』, 서울: 조이선교회.
- Ford, Paul F. & Cauley, Lorinda Bryan. (2005) *Companion to Narnia*. San Francisco: HarperSanFrancisco
- Hessel, Dieter T. & Ruether, Rosemary Radford. (2000) *Christianity and Ecolog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Lewis, C. S. (2001). *The Chronicles of Narnia*. New York: HarperCollins.
- _____, (2001). 『나니아 연대기』. 서울: 시공주니어.
- _____, (2001). *Mere Christianity*. 장경철 외 역 (2005). 『순전한 기독교』, 서울: 홍성사.
- _____, (1994) ed. by Walter Hooper. *God in the Dock*. Michigan: Eerdmans Publishing Co.
- Nash, James A. *Loving Nature*. 이문균 역 (1997). 『기독교 생태윤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Nicholai, A. M. *The Question of God*. 홍승기 역 (2004). 『루이스 VS 프로이트』. 서울: 홍성사.
- Otto, Rudolf. *Das Heilige*. 길희성 역 (1999). 『성스러움의 의미』. 서울: 분도출판사.
- Sammons, Martha C. *A Guide Through Narnia*. 하연희 역 (2005). 『나니아 연대기 가이드북』, 서울: 루비박스.
- Sayer, George & Dorsett, Lyle W. *Jack*. 홍종락 역 (2006). 『루이스와 잭』. 서울: 홍성사.
- Schakel, Peter J. *The Way Into Narnia*. 박종윤 역 (2005). 『나니아 가는 길』. 서울: 베이스캠프.
- Sire, James W. *The Universe Next Door*. 김현수 역 (2007).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서울: IVP.
- Stott, John R. W. *New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정옥배 역 (2005).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 입』. 서울: IVP.

C. 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 나타나는 생태학적 상상력